

심리적 위기 관리 전략

김 성 희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이동학과)

I. 경기침체와 위기의 배경

1990년대까지 한국은 발전국가로서 평균 8-9%의 GNP성장을 기록하였다. 1993년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자본시장과 무역시장이 개방된 이후 취약한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로 IMF에 의한 관리체제에 들어갔고 한국의 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의 퇴출 등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외화채무 비중을 감소시키고 외환보유고를 증가시켰다. 외환 보유고는 1997년 88억 달러에서 2001년 95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외화 채권과 채무의 내용도 건실해졌다. 원화 가치도 1997년 1964원까지 폭락하였지만 2001년에는 1340원으로 올라갔다(임봉수, 2001).

그러나 이런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에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2003년 3월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98년 11월 외환위기 수준이었던 68.2보다 훨씬 낮은 50.2로 급락 악화되었다. 이는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경기침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낸다(조선일보, 2003. 4. 10.).

이러한 상황은 쉽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것은 국내경기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이라크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망은 밝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서 예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증시 랠리로 경제를 회복하고, 이라크의 원유를 지배하여 세계경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경제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유가 상승, 통상압력의 강화,

국내경기하락, 세계 반도체 경기 둔화, 심화되는 노사분규로 국내의 경제 위기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기변동이 인플레이 현상을 보였던 것과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을 보이고 있고, 생태환경의 문제와 더불어,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생산시스템, 새로운 시장체계의 도입 등으로 산업문명 전체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업문명이 사라지고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며 생기는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통신(IT) 산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은 이러한 문명의 전환을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정보통신(IT)산업에 대한 투자가 영업비용감소, 재고감소,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전체 산업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 왔다. 실제 나스닥 시장은 2000년까지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벤처기업의 번영으로 실업률은 거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지속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IT에 과잉투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의 미국 가계, 기업, 정부의 재무구조는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미국 가계는 빚을 얻어 주식에 투자해서 소비 지출을 늘려 호황을 누렸다. 기업도 증시호황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부채가 급속히 늘었다. 국가적으로는 벤처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낮아져 소비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해외부채가 늘어나 세계 최대 부채국이 되었다. 1990년대 호황 이후 거품이 빠지고 나면 미국 경제에는 장기간의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임봉수, 2001).

미국의 이러한 경제상황은 현재 국내 가계와 기업, 국가가 겪는 위기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침체와 위기는 새로운 시대의 산업인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경제 뿐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해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 보아진다. 이런 총체적 관점에서 현재의 경기침체와 위기가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영향을 살펴보고 심리적 위기에 대한 전략을 개인과 가정, 기업, 사회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워보고자 한다.

II. 경기침체와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1. 자산가치 하락

현재 국내에서는 경제성장률 하락이 물가상승과 맞물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어려운 경기 국면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내외경제, 2003. 4.11). 소비와 투자가 극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시중에 자금은 넘쳐 흐르고 물가가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중자금이 증권시장과 은행을 통해 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실물자산에 유입되어 전세의 경우 서울에선 평당 1000만원이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문화일보, 2003. 3. 27).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장기불황을 초래한 디플레이션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디플레이션의 세계화가 우려되고 있다(중앙일보, 2003. 5. 12). 과도한 생산투자와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의 결과 경기 침체 속에 물가하락을 보이는 디플레이션은 일반 물가에 이어 주가도 내림세를 보이지만 무엇보다 개인의 주요 자산인 집과 땅 등 자산가치의 하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제를 무기력하게 만들 것으로 경제의 대상이 된다. 자산가치 하락은 소비감소를 통해 경제를 급격히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10년 동안 집값이 1/4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최근 선진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대한매일, 2003. 4. 14.). 국내에서는 시중자금의 유입으로 아직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부동산의 거품 가격이 빠지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2. 이자소득 감소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고갈되면서 저금리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과 기업들의 투자 부진, 쉽게 들어오는 값싼 외국자금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마땅한 투자처와 기회를 찾지 못해 자금 수요가 없고 그 결과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내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비싼 땅값과 임금, 노사분규 등 투자환경이 나빠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자가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도 국내 기업이 돈을 빌려 쓰지 않는 것은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도체의 추가증설, 통신서비스 등 일부 산업에서만 시설투자가 있고 그 외 업종에선 시설투자 계획이 별로 없다. 기업의 해외투자자금도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하는 등 국내 은행 자금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자본시장 자유화가 급진전되면서 상대적으로 값싼 외국 자본이 밀려들고 있는 것도 국내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요인이 복합된 저성장 단계로 들어서면 저금리 기조는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매일, 2003. 4. 14.). 이자소득에 의존도가 높은 가계는 소득감소로 고통받을 것이 예상된다.

3. 실업률 증가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아니더라도 피터 드러커(2001)에 따르면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분리되어 생산이 증대하더라도 육체 노동자의 고용은 감소한다. 1980년대 이후 어느 국가에서나 생산직 노동자의 숫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국제 교역에 있어 저임금이 제공하던 경쟁우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자동화된 생산 공정의 총원가는 저임금 노동자에 의한 생산 공정의 총원가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추세이다.

육체노동자의 뒤를 이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집단이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s)이다. 지식근로자가 되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하므로 육체노동자가 지식근로자가 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러한 전환이 이미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피터 드러커, 2001). 그러나 국내에서는 IMF 경제위기시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일용노동자들이 경제위기의 충격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았다(정영무, 1998).

경제성장의 둔화로 육체노동자 뿐 아니라 지식근로자도 실업의 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 경제성장의 최종 목표는 고용증대이다. 기업이 잘 되어 채용을 늘리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 건전한 중산층을 형성해서 안정된 사회를 이루려는 것이 경제성장의 목표이다.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기업 수익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설비투자 및 고용 축소, 임금 동결 내지는 인하로 이어져 결국 개인은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진다(내외경제, 2003. 4. 11.).

노숙자의 증가는 실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당시 노숙자의 75%는 경

기변동에 의해 발생한 실업자였다(정영무, 1998). 이 중에는 대졸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2003년에는 서울역 주변 노숙자가 2002년 겨울보다 30-40% 증가하였다.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다. 시내 전역으로 확대되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숙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매일경제, 2003. 4. 11.).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실업은 육체노동자 계층의 가정 뿐 아니라 중상층의 가정까지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가계부채의 증가와 소비의 감소

경기침체로 주가가 폭락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의 부채와 개인적 파산도 증가하고 있다. 2002년 가계의 금융부채가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7.8%로 미국 29.1%, 일본 2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았다.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가계의 금융 잉여가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998년 75조 5000억원에 달했던 가계의 금융잉여는 2001년 27조 4000억원으로 축소됐고, 2002년에는 12조 5000억원 자금부족으로 전환됐다(대한매일, 2003. 5. 2.).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가계 부채의 증가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들이 카드빚을 갚지 못한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가 전체 접수건수의 80%가량에 달하고 있다(매일경제, 2003. 4. 11.). 2002년 20대 실업률은 평균 6.3%로 매우 높았지만 과소비 등에 따른 신용불량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1년 신용불량자 111만명 중 20-30대의 비율은 45.4%였으나 2003년 2월에는 137만명 중 48.3%로 증가하였다(문화일보, 2003. 4. 12.).

부채의 증가, 소득의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절반은 민간 소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적절한 소비없이 경제 안정과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간 소비가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율은 1999년 51.8%, 2000년 43.6%, 2001년 77.1%, 2002년 54.9%였다(동아일보, 2003. 4. 17.). 2003년 3월 대형유통업체 매출은 백화점이 지난해 3월에 비해 7.1% 감소하였다(매일경제, 2003. 4. 11.). 민간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 소비위축-판매부진-생산위축-소득감소-소비위축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경제성장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가계는 소비의 감소로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위기감을 갖게 된다.

5. 가족해체의 증가

가족은 위기시에는 외부충격을 완화시키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결속을 다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경제위기는 가족원 전체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하여 가족해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정현숙, 1998) 실직자는 가족생활과 삶에 대해 90% 정도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약 20%는 결혼생활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부도나 구조조정으로 실직이 발생하면 실직 직후에는 가족들이 위로를 하며 표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게 되면서 가족갈등이 표면화되었다(김은미·이선이, 1998).

실직의 경험은 실직자 자신은 물론 배우자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족 내적으로는 전업주부가 새롭게 경제주체로 부상되면서 전통적 성역할이 도전을 받게되어 부부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김재갑·김은미·이선이·최우영, 1998). 부인이 취업하고 있더라도 가계부양자는 남편, 가정은 부인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위배되는 역할분담이 일어날 때 남편과 부인 모두가 더 높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겪었다(정기선, 2000). 가족 외적으로는 실직으로 인해 출산을 유보하거나 노부모에게 육아를 전가하고, 원거리 취업으로 가족이 일시적으로 해체되거나 부모 형제 가족과의 합가를 계획하는 등 구조가 재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김은미·이선이, 1998 ; 김재갑 외 3인, 1998)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갈등은 경제상태와 관련있었다(안병철, 1999). 궁핍한 가정의 부부는 갈등이 많았고, 가족의 경제적 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족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족보다 말다툼이나 대화 거부가 더 많았다. 그리고 경제적 궁핍과 경제적 중압은 부모-자녀 갈등에도 영향을 주어 궁핍한 가정일수록 부모-자녀 갈등이 많았고 가족의 경제 형편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족보다 부모-자녀 갈등이 더 컸다. 경기침체가 오래갈수록 실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족해체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Ⅲ. 심리적 위기 관리 전략

1.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단순하게 살기

실업이 증가하고 실질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는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사람들은 생활수준을 조정해야할 위협을 느끼고 있다. 실업자는 과거의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지고 있고 실업에 직면하지 않은 가정도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녀왔던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은 인간의 삶을 상실에 대한 위기감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풍요의 시대가 종식되면서 소비와 소유가 미덕이었던 것에서 다시 보존과 검약의 자원이 강조되고 있다(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 2002). 그러나 미래에 요구되는 근검과 검약하는 삶이란 전통사회에서처럼 희소한 자원과 가난 때문에 강요당하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삶이며 관계를 단순화하고 소유물질을 단순화하는 선택된 삶이어야 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가난을 맞기에 앞서 스스로 보다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기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선택한다면 상실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시키고 무력감과 절망감,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과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상실의 고통 없이 물질과 욕망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적 가난은 인간다운 삶의 박탈, 또는 궁핍을 뜻하는 빈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발적 가난은 물질 소유를 통해 빈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발적 가난이란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물질과 욕망에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슈마허 외, 2003).

물질적 소유에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충만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삶은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치장된 삶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삶을 의미한다. 물질 소유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과 가능성을 발견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란 결국 물질 소유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일상의 복잡한 활동과 소유욕은 단순함에 대한 원초적 욕구에서 비롯된다(베르너 티키 퀴스텐마허 · 로타르 J. 자이베르트, 2002) 노년에 여유를 즐기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싶어하고, 편히 쉬기 위해 멋진 집을 짓고, 귀찮은 설거지 대신 재미있고 편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식기세척기를 소유하려고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가재도구를 장만하는 것은 좀더 단순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이러한 계획은 열심히 일해야만 가능하게 되어 점점 더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존 더 그라프 등이 쓴 어프루엔자(2002)에서는 소비지향적이고 물질만능주의적인 삶을 유행성 독감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삶은 과중한 업무, 빚, 낭비, 근심의 증상을 나타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검약생활, 자발적인 단순한 삶, 자연에 접하는 생활을 해야한다고 한다. 소유하고자 할수록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경제위기를 맞아 상실의 두려움을 증가시키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가난한 생활을 선택하여 단순하고 간단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2. 부와 소유에 대한 의식 바꾸기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사람들은 물건을 소비하고 재산을 모으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삼았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과 재산은 지위를 나타내주는 지표였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지위를 부여하였으므로 남다른 상품을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갖겠다는 욕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상품개발과 혁신, 업그레이드로 제품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었고, 저렴한 상품보급으로 보유의 희소성이 적어지면서, 물품을 소유하고 보유하는 태도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개발과 이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생산이 극대화되면서 환경은 파괴되고 물적 자원은 고갈되고 있다. 물적 자원을 소비하고 소유하기 위한 경쟁적 삶은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2002)에 따르면 소유는 접속(access)으로 바뀌고 있다. 부는 이제 물적 자본이 아닌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가진 인적 자본에서 나오고 있다. 소유 한계에 달한 물적 자본 대신 무한한 상상력과 창작력을 가진 인적 자본이 사용가능한 자원으로 부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사회변화에 따라 소비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은 이러한 전환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접속을 통해 자원을 쉽게 빌릴 수 있고 가입비, 회비를 내고 단기간 임대할 수 있게 되면서 물질 자본이 부의 원천이 되는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물질 자본은 생산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주변적인 생산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공장과 농장에서의 생산은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고, 성인인구의 5%만으로도 기존의 산업영역이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영역은 재화의 생산이 아닌 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품의 상품화에서 시작된 산업생산은 인간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체험과 생활경험을 상품화하는 문화생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적 자본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사회에서 개인은 노동의 결실로 얻은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사회에서 자유는 소유가 아닌 놀이를 통해 느끼는 즐거움에서 얻어진다. 산업사회의 노동 정신은 놀이 정신으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다. 문화체험의 상품화라는 것은 놀이를 사고팔 수 있는 형식으로 바꾸려는 것에 불과하다.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놀이가 상품자원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 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맞아 물품의 소유에 집착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문화를 부의 대상으로 보는 의식의 변화가 위기감을 극복하는데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잘 노는 것이 미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지식근로자로의 전환 준비하기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근로자는 대부분 육체노동자에서 지식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다(피터 드러커, 2001). 산업구조와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는 실업자로 전락하고 이에 따라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사회에서 최대 노동력 집단이자 최대 인구집단이 될 지식근로자는 정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게 된다. 지식사회에서 교육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며, 사람들은 스스로 학습방법을 몸에 익히고 지속적으로 학습능력과 의욕을 가져야 하므로 평생교육이 강조된다.

그러나 육체노동자에서 지식근로자로의 이동은 고통과 위험을 수반하므로 개인과 가족

은 모두 이런 변화에 저항한다. 노동시장에서 지식근로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당연하고 적응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차원에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이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받는 것을 제도적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용직 저소득 육체노동자 계층은 가장 실업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므로 이들 집단이 지식근로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실업 전에 교육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실업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뿐 아니라 다른 가족원도 지식근로자로 준비해야 한다. 가장 1인이 소득을 벌어들이던 시대에서 다인 가장 시대로 소득획득원이 다원화되어야 경기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실직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것이 실업대책의 핵심사업이기는 하나 근로자가 1인인 가정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족원 중 전업주부는 남편과 더불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가장 유용한 인적 자원이다. 앞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인력은 육체노동자가 아니라 지식근로자이므로 전업주부는 언제든지 지식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부가 지식, 정보습득 및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가정의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 네트워크와 전자설비로 가능해진 재택근무는 주부에게 소득창출의 좋은 조건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혼여성인 주부는 심각한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정숙경·김인순, 2001). 주부집단은 지식, 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의 인적자원을 개발할 시간 및 동기에 있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경제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정보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은 생활, 취미교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곽삼근, 2001). 컴퓨터와 정보생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는 하지만(이기영 외 2인, 2003) 이를 바탕으로 직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전문 지식 정보관련 교육에 대한 동기는 부족하다. 주부의 근로 동기를 강화시키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기혼 전업주부의 전문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주부가 노동의 기회를 공평히 갖고 가계부양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가정과 사회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육과 가사의 이중부담, 가정생활이 기업의 생산성과 무관하다고 보는 기업의

가정생활에 대한 몰이해, 임금의 차등 지급은 여성의 근로의욕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주부 인력을 가계소득 창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가정친화적 기업환경조성, 보육 환경의 개선, 가족의 가사노동 참여, 남녀고용 조건의 개선과 같은 사회적 변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4. 스트레스 극복하기

실직자나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르는 고용불확실성 속에서 일하는 취업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긴장과 불안을 겪게 된다(Fox and Chancey, 1998; Kinnunen and Pulkkinen, 1998). 정현숙(1998) 연구에서 실직자들은 구직활동(80%), 공공근로사업(65%)에 참가함으로써 대부분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자신에 대해 가치있고 좋은 점이 많은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화를 내는 경향도 많았으며 가정폭력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직이나 고용불안정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은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보이는데 정서적으로는 우울이나 불안한 정서, 쉽게 화를 느끼거나 분노하고 적대감을 표시하는 대인민감증후군 또는 대인적대감을 보이고, 인지적으로는 자존감 또는 자아효능감이 떨어지거나 귀인성향의 변화를 보인다. 행동적으로는 긍정적 행동으로 구직활동,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 종교활동을 보이거나, 부정적 행동으로 알콜이나 약물에 의존하기, 폭력적 행동 보이기, 자살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심리학의 연구결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관한 걱정이라고 한다. 4%는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고 4%만이 걱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김정운, 2003). 96%의 쓸데없는 일에 사람들은 걱정하며 우울해 한다고 볼 수 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우울해 할수록 집단불안감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긴장과 불안은 생산적 활동 위축을 초래하므로 사태는 더욱 악화된다.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고 고용불안정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은 소유한 자원과 대처방법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해결적 대처 반응을 취할수록 실직이라는 스트레

스원에 대한 심리적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심리적 자원에는 자아존중감, 자아효능감, 자아통제감, 내외적 귀인성향, 강인성이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자원으로는 배우자, 가족, 친지와 친구, 지역공동체나 종교단체 등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받는 정신적, 물질적, 정보적 도움이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경옥·정용선(2000)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 대처행동은 가치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시간미래지향적 가치와 운명통제지향적 가치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경제생활만족감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력에 의해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욕구를 억제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소득의 확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만족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도전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기는 새로운 생산활동의 전환점이 된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인력감축, 업무재배치 등 위기를 맞았을 때 중장년층에서는 영어학습과 사회보험 노무사, 부동산거래사, 중소기업진단사, 세무사, 위생관리사, 위험물취급사, 경영관리, 부기검정, 행정사무 등의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이 인기를 끌었다(문화일보, 1998. 1. 20).

현재 경제위기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계층은 40대와 50대의 중장년층 계층이다. 이들은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시스템이 정년제를 대체하여 고용불안이 높고, 고령화로 노후생계대책을 필요로 하지만 준비없이 정년의 위기를 맞고 있어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 중장년층은 실업의 위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재교육을 받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준비를 하더라도 '나이' 제한으로 재취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어렵다.

중장년층이 실업과 경제위기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차원에서의 심리적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성과주의 시스템과 정년제를 결합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기간을 늘리면서 능력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정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 대해 임금을 줄여서 고용을 유지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제를 없애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령차별 금지 조항을 만들어 어떤 연령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층도 자기 삶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려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들 청소년에게는 과거와 같이 교육을 받은 후 기업에 입사해서 결혼하고 승진하여 정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단일한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기존의 획일주의적 사회구조나 문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청년에게 다양성과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위기감을 더 할 뿐이다. 교육은 청소년기까지 받는 것이 아닌 평생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에게는 스스로 교육내용을 결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새로운 교육이 요구된다. 자립과 자율성, 다양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하며, 아이디어 창출을 자극하는 교육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극복에 사회적 지원으로 필요하다.

5. 기업과 부자에 대한 인식 바꾸기

기업의 활동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생명과 같다. 기업의 투자욕을 복돋워 주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2003년 한·중·일 3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기업관, 시장관을 비교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반(反)기업, 반시장 정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중앙일보, 2003. 4. 28). 한국 중국 일본 중 한국 국민의 반시장 정서가 가장 높았고 국민들의 약 절반 가량이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기업정서가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을 국가발전의 도구로 의식하고 있으나 58.8%가 기업의 이윤 추구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변하였다.

부자는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라는데 동의하느냐에는 35.7%가 그렇다고 하였다. 일본국민의 25%, 중국인의 17.4%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부자에 대한 반감이 높았다(중앙일보, 2003. 5. 1.). 기업에 대해서는 47.9%가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고, 57.4%가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기업은 탈법적 행동과 환경오염에 대한 무관심, 사회적 무책임성과 같은 전근대적 행태에 대해 자성과 더불어 혁신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하지만, 국민의 기업 및 시장활동에 대한 인식도 국민복지와 소비자 복지향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 노력할수록 소비자는 질 좋고 값싼 상품을 쓸 수 있고 직원의 임금도 많아지고 국민의 생활수준은 나아진다. 기업과 부자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바뀌어야 개인은 재산증식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쏟을 것이고 기업은 시장경제 유지를 위한 투자를 증대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6. 가족관계 개선하기

경기가 침체되거나 실업위기를 맞았을 때 가족은 조정되거나 해체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되고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도 요구된다. 1인 가장 시대에서 다인 가장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 전통적 성역할 태도가 본격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고, 남편과 부인간 또는 부인의 내적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김은미·이선이, 1998).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남편=가계부양자, 부인=가정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버려야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실직자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배우자로부터 정서·자존감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정적 정서반응을 덜 나타낸다. 배우자로부터의 높은 정서적 지지는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와 건강관련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낮춘다(노연희, 1999; 성혜영, 1998; 정기선, 2000).

그리고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지속취업자이건 실직경험자이건 남편과 부인 모두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낮춘다(정기선, 2000).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정서적 자존감 지지를 받는 것이 경제위기를 겪는 부부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7. 가정생산 증가시키기

경기침체와 위기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여 생활수준이 저하되는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을 때 가정생산을 증가시켜 위기감을 극복할 수 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 물가인상, 기업의 부도, 실업이 확산되면서 위기에 빠진 가정과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데 사회적으로 주부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다(이기영·윤미림, 2001). 감소된 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을 늘리라는 공적인 요구가 가사노동의 전 영역에 걸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많은 신문에서 주부들에게 긴축생활을 요구하였고, 국산품 애용,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물자절약, 저축을 권장하였다.

가사노동은 무보수노동이기는 하나 명백히 화폐가치를 창출하는 생산노동이다. 1998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가사노동의 화폐가치 비율을 추계한 것을 보면 59조 1천억여원으로 당해연도의 국내총생산의 11.3%를 차지하였다(김정희, 1998). 가사노동은 양육, 교육, 심리적 지지, 자급적 생산을 포함하는 생계생산적 특성을 갖는 생산적 노동이므로 시장생산이 위축되었을 때는 '상품'에 의존하던 가족구성원의 소비를 대신하여 사용가치를 직접 창출해낼 수 있다. 극단적으로 가정은 생계경제에 의해서만도 유지될 수 있으므로 전체 경제 체계가 모순과 혼란에 빠진다 하더라도 가정생산을 늘림으로써 인간생활을 구제하고 생활의 질을 유지시켜갈 수 있다.

필요가 종식되고 경기침체로 총체적인 생활양식의 변화가 요구되면서 재화와 용역의 비시장생산으로의 복귀와 산업에 있어서 소규모 생산단위로의 복귀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노동집약적이고 환경을 덜 손상시키며 가정생산의 경우에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평가된다(임정빈 외 4인, 2002).

새로운 경제체제하에서 가정생산의 양식은 전통사회에서와 같은 자급자족적 양식과 다른 새로운 변형된 양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상지역화폐를 이용한 품앗이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송파구에서 유통되는 가상지역화폐(SM)를 이용한 품앗이제도는 가계불안을 가진 주민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한 주민은 피부관리사의 자녀에게 과외지도를 해주고 교습비의 일부를 가상지역화폐로 환산해서 장부에 정립한 후 피부관리를 받으며 누적된 SM을 이용한다. 가전제품, 자동차 수리, 피부관리 등 각종 물품, 서비스를 교환할 때도 이 가상지역화폐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문화일보, 2003. 4. 10.).

이러한 방식으로 가정에서의 생산활동을 증가시키고 가정생산물과 서비스를 교환하여 소득이 감소되어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자녀에게 직접 과외 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웃과 연대하여 자신이 특정 과목을 가르쳐 주는 대신 다른 과목의 과외를 무료로 받아 시장에서 소비지출을 하지 않고도 가정생활의 질을 유지시킬 수 있다.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빈자와 부자가 80: 20의 비율로 다수가 빈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소득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계지출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방법으로서 가정생산을 증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실업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극단적으로 의·식·주생활과 관련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는 생활경험이 상품화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스스로 의·식·주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빈자의 시대이기도 하므로 생활을 기술적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가정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정’이나 ‘가사’와 같은 생활교육을 하였던 것과 유사하게 새로운 네트워크 시장과 지식 정보사회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교환될 수 있는 문화 또는 생활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박삼근(2001). 21세기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국제세미나-21세기 한일 여성평생교육의 현황과 발전전망-자료집, 47-76.
- 김은미·이선이(1998). 고실업시대의 가족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 제 51차 춘계학술대회: 국가경제 위기와 가정의 대처.
- 김재갑·김은미·이선이·최우영(1998). 실업 스트레스의 변화. LG 커뮤니카토피아 연구소.
- 김정운(2003). 우울할 땐 움직여라. 중앙일보 2003. 4. 28.
- 김정희(1998). 주부의 가사노동의 국가경제기여도. 대한가정학회 제 51차 춘계학술 대회: 국가경제위기와 가정의 대처전략.
- 내외경제. 2003. 4. 11.
- 노연희(1999). 실직자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화 반응 및 대처행동. 서울대 심리학과 석사 학위논문.
- 대한매일, 2003. 4. 14.
- 대한매일, 2003. 5. 2.
- 동아일보, 2003. 4. 17.
- 매일경제, 2003. 4. 11.
- 문화일보, 2003. 3. 27.
- 문화일보, 2003. 4. 10.

- 문화일보, 2003. 4. 12.
- 문화일보. 1998. 1. 20.
- 베르너티키 퀴스텐마허 · 로타르 J. 자이베르트 · 유혜자 옮김(2002). *단순하게 살아라*. 김영사.
- 성혜영(1999). 실직 가정의 가족스트레스가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성균 관대 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병철(1999). 경제위기와 가족관계. *한국사회학회 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 이경옥 · 정용선(2000). 가치, 경제위기 대처행동, 경제생활만족감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3(2), 145-175.
- 이기영 · 윤미림(2001). 경제위기 하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공적 요구를 통해 본 가사노동의 생산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73-87.
- 이기영 · 이승미 · 송혜림(2003). 지식정보화사회 조성을 위한 주부의 인적자원개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129-142.
- 임봉수(2001). 미국발 긴급 리포트. *중앙 M&B*.
- 임정빈 · 지영숙 · 문숙재 · 이기영 · 이연숙(2002). *가정관리학*. 신정.
- 제러미 리프킨 · 이희재 옮김(2001). *소유의 종말*. 민음사.
- 정기선(2000). 경제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 34집(여름호), 389-416.
- 정숙경 · 김인순(2001). 기혼여성의 정보불평등 현황 및 해소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정영무(1998). *밀레니엄 파고*. 한겨레신문사.
- 정현숙(1998). 실직 가정의 실태와 지원요구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제 24차 학술대회: 실직자 가정의 위기극복을 위한 가정복지 지원체계*.
- 조선일보. 2003. 4. 10.
- 존 더 그라프, 데이비드 웬, 토마스 네일리 · 박웅희 역(2002). *어플루엔자*. 한숲.
- 중앙일보. 2003. 4. 28.
- 중앙일보. 2003. 5. 1.
- 중앙일보. 2003. 5. 12.
- 피터 드러커(2001). *이노베이터의 조건*. 청림출판.
- E. F. 슈마허 외(2003). *자발적 가난*. 그물코.
- Fox, G. L. and D. Chancey(1998). *Sources of Economic Distress: Individual and Family*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25-749.

Kinnunen, U. and L. Pulkkinen(1998). Linking Economic Stress to Marital Quality among Finnish Marital Couples: Mediator Effect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05-724.